

■ 법률 칼럼

# 시민권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 밀입국 배우자나 부모의 영주권 신청

이민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한 경우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의 부모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많이 소개해드렸던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또는 복무 중인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Legal Entry)를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 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undoc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밀입국한 사람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



▲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 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 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 11학년, 대입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



2023학년도 미국 주요 대학의 얼리 원서 마감일이 7개월 정도 남았다.

11학년 학생들은 지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학교 성적도 올려야 하고, SAT 시험도 봐야 하고 AP 시험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액티비티도 계속 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지원할 대학을 좁혀서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지원할 대학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체적 윤곽이 잡혀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합격 전략을 짤 수 있다.

학생 자신의 능력 혹은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지원대학을 고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와 자신이 정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골라야 한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준비를 할 것들이 많다. 반면 중간 정도의 주립대학들은 학업 성적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학교 성적이 어떤 가를 보고 지원 대학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적(GPA)이 3.2라면 대학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인들이 아는 주립대학에 지원하기도 벅하다.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SAT, ACT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Test Optional이다. 그런데 만일 SAT 점수가 확

보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느 대학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고, 어느 대학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학마다 다르다.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SAT 점수만 갖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원하려는 대학과 GPA 점수와의 연관성을 갖고 결정을 해야 한다. GPA가 다소 낮더라도 높은 SAT 성적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대로 GPA가 3.2라고 하더라도, SAT 점수가 높다면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GPA 3.2 학생의 SAT 점수가 1,490 점이라면 유명 주립대학에 지원해 볼 만하다.

따라서 지금은 학생의 학업적 성적을 기반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격차가 너무 크면 지원할 대학교 리스트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치되거나 근접해 있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

더불어 학비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워 재정보조/장학금이 필요하다면 대학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제적인 여건이 대학 선택의 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재정보조를 받지 못해 등록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합격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